

한우고기 수출현황 및 수출활성화 방안

Korean Beef Export Status and Export Revitalization Plan

서영석* (Young Seok Seo*)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 국장

Department of Policy and Guidance, Hanwoo Association

I. 서론

우리나라에서 한우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5개국으로 홍콩, 마카오, UAE,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이다.

표 1을 보면 2015년 홍콩으로 한우고기 수출을 시작해 조금씩 증가해 2018년 65톤에 이르던 수출물량은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리면서 국내 한우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수 소비가 증가해 수출량은 2021년 38톤으로 감소했다. 2022년에는 수입쇠고기 무관세 물량 도입 등 국내 쇠고기 시장의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한우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수출 물량도 21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올해는 한우가격 하락과 함께 정부의 한우고기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5월 말레이시아 한우고기 수출을 비롯해 캄보디아 등 한우고기 수출시장 확대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 한우고기 수출에 교두보적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1. 연도별 한우 수출실적

년도	수출물량(Kg)	수출금액		Kg당 수출가격(\$)	전년대비	
		(천\$)	(원)		물량	금액
2016	47,885	3,478.3	4,191,351,500	72.6		
2017	57,061	3,308.9	3,533,905,200	58.0	19.2%	-4.9%
2018	65,245	3,325.4	3,711,146,400	51.0	14.3%	0.5%
2019	51,616	2,910.0	3,422,160,000	56.4	-26.4%	-8.4%
2020	48,882	3,098.2	3,423,511,000	63.4	-5.6%	6.1%
2021	38,764	3,016.8	3,586,975,200	77.8	-26.1%	-2.7%
2022	44,359	3,062.4	3,782,064,000	69.0	14.4%	1.5%

*Corresponding author: Young Seok, Seo

General Manager, The Department of Policy and Guidance, Hanwoo Association, 9, Seochojungang-ro 6-gil,

Seocho-gu, Seoul, Korea

Tel: +82-2-525-1053

Email: ironmantis@naver.com

한우협회에서도 이에 발맞춰 지난 8월 홍콩에 한우고기 안테나숍을 개장해, 한우고기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II. 수출분과위원회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하지만 한우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한우고기 수출 초기인 2016년에는 수출분과위원회를 발족해 민간 위주로 운영을 해왔다. 위원회에서는 수출용 한우고기 품질, 가격, 포장방법, 홍보방안, 수출지원, 규정 등을 지정하고 운영해왔다.

현재는 한우수출분과위원회가 정부 주도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수출물류비 지원은 한우협회가, 수출국 현지 홍보는 한우자조금이, 한우수출조합협의회는 농협경제지주가 각각 운영하고 있다.

최근 수출분과위원회에서는 한우 수출로고 및 인증 등 각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찾고 있지만, 각 기관별 역할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분명해야만 각 활동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III. 적극적인 수출정책 마련되어야

또한 기존에는 한우고기 사육두수(공급량)에 따라 수출량에 부침이 있었는데, 국내 시장에서 소진하지 못한 고기를 수출한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수출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지금이야말로 한우고기 수출 장기플랜을 수립해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수출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5월 발생했던 구제역과 같은 국내 방역 이슈도 함께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일본 역시 화우 수출에 적극적인 국가다. 일본은 '21년 기준 20여개 국에 7천9백여 톤을 수출하고 있다. 수출량에 비해 수출국이 20개국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일본은 중앙축산회 조직내 '14년 축산물수출촉진협의회를 통해 브랜드 홍보, 물류 등 관리 및 예산지원이 일원화 되어 진

행되고 있다는 점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

올해 한우고기 수출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규제 완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업체가 요구한 외국어 확인서 발급을 위해 이력정보 조회 화면을 개선하고, QR코드를 제공하는 등 발빠른 행보와 같은 적극적인 수출지원책이 필요하다.

IV. 예산 지속 편성 기대, 수출 경매 확대해야

수출업체에서는 올해 약 40억 원까지 편성된 수출관련 예산과 관련해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모든 정책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지속성 없이 성과를 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수출경매를 도입해 수출업체 부담을 낮추고, 농가도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우고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우 생축을 확인 후 도축하여 등급을 확인하여 수출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원하는 등급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3배수의 소를 도축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고령공판장과 나주공판장에서는 수출경매를 도입해 운영 중인데, 원하는 등급의 도체만을 구매할 수 있어 수출업체 호응이 높고 농가수취가격도 높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도축물량이 적다보니 음성, 부천공판장 등 메이저 도축장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V. 한우고기 수출에 모두가 관심 모으자

한우사육마릿수 증가로 한우고기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했지만, 보다 전향적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에서도 일시적 관심에 그치지 말고, 소멸되는 농촌에 대한 대안으로서 또 국내 인구 감소로 인한 소비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수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 더해 전세계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K-문화 확산에 한우고기가 큰 획을 그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